



2대리구 성김대건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주님 공헌 대축일 2022. 01. 02. (다해) 제2302호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2독서** 에페 3,2,3-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린 사람들



대곡본당 주임 | 김병수 루카 신부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의 공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심을 기념하는 날이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모두가 그분을 알아보고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간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은 밤새워 양들을 지키며 깨어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든 일을 하는 목동들이었지만 순수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에 있어 베들레헴을 향한 여정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헤로데와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주님을 찾겠다는 열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인 오늘, 우리도 주님께 참다운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순수하고 가난한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보아즈 (룻 2~4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보아즈는 유다의 7대손 살몬과 이방인 여성 라합(여호 2장) 사이에서 난 아들로, 다윗 임금의 증조부가 되는 인물입니다(마태 1,5). 보아즈는 판관 시대에(룻 1,1)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유력한 “재산가”(2,1)였습니다. 성경에서 “재산가”(כֶּסֶף גִּבּוֹר 김보르 하일)라는 표현은 힘센 용사나 권력가나 큰 부자를 가리키는데요, 보아즈는 부유한 지주이면서도 겸손하고 소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확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2,4)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2,14) 타작마당에서 함께 잠을 청하는 등(3,7) 작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는데요, 보아즈의 이런 모습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셨던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마르 2,15-17).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수확을 하다가 지나온 곡식 묶음이나 열매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신명 24,19-21).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묶음으로 남겨두라는 뜻인데요, 보아즈는 자선을 명하는 이러한 계명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는 율법상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 없는 모압족’(신명 23,4) 여인이었던 룻이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허락해 주었을 뿐 아니라, 종들에게 아예 보리 다발에서 이삭을 빼어 흘려주라고 말해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이였습니다(룻 2,8-9,15-16). 허기진 이방인 과부 룻에게 빵과 물을 손수 내어주는 그의 모습은(2,9,14)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45)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גֹּאֵל : “구원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문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는데, 고엘은 가난한 친족이 빚으로

땅을 팔게 되었을 때 대신 값을 치르고 땅을 되돌려 준다거나(레위 25,23-28), 그가 가난 때문에 종이 되면 그 빚을 갚아주어 해방시켜 주는 보호자였습니다(25,47-55). 또 어떤 이가 자식 없이 죽으면, 혈통상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주는 것도 고엘의 역할이었지요(신명 25,5-10). 보아즈는 한밤중 타작마당에서 그의 잡자리의 발치를 들치고 누운 룻을 탐하지 않고, “내 딸이”라고 부르며 보호를 약속합니다(룻 3,10-13). 룻의 명예를 지켜주고(3,14) 넉넉히 곡식을 쥐어주며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배려하는 그의 모습은(3,17), 하느님께서 주신 힘과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보아즈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었지만, 그는 나오미의 밭을 사더라도 룻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에게 그 땅을 거저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손해가 두려워 구원자 의무를 거절합니다(4,1-10). 그에 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율법에 담긴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구원자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인 보아즈의 모습에선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도 엿보이네요.

초대 교회의 여러 교부들(세비아의 이시도루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은 구원자 보아즈와 이방 여인 룻의 결합을, 교회의 신랑이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민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구원 사건의 예표로 해석했습니다. “그분 안에(בּוֹבו) 힘(כֹּחַ)이 있다.”는 뜻의 이름 그대로, 보아즈(בּוֹאֵז)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작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구원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그의 모범을 따라 나의 가족과 친지들의 삶과 신앙을 보살피며 구원을 돕는 이 시대의 보아즈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 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 28,5)

투스캄교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 정혜선 세라피아 수녀

화두처럼 늘 마음 한구석에 붙어 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언젠가는 하늘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 내게 주어질 것 같은 막연한 기다림이기도 했습니다. 살다가 특별한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인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됨은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일 뿐, 결혼 성소에 응답하여 결혼하는 사람의 입장과 다르지 않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녀원에서 주어진 다양한 소임들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모여 인생을 이룬다면 한순간도 가치 없는 순간이 없다. 마치 저수지 둑을 이루는 데는 큰 돌도 작은 돌도 모두 필요하여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리로 물이 새어 결국은 둑이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특별해야 하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루카 17,21) “하느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마태 13,44)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듯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안에 있다는 말씀이고, 보물은 그 일상이라는 밭에 숨어 있다. 그래서 그 보물은 일상에서 발견하면 된다. 하느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삶 자체가 ‘통째로’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삶 자체가 통째로 의미가 된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정성스럽고 소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뿐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물질조차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수도원의 모든 그릇과 전 재산을 제단의 축성된 그릇처럼 여겨 아무것도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베네딕도 성인의 규칙서(31,10)에 나오는 말씀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집니다. 더구나 하느님께서서는 나로 인해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 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신명 28,5)란 가능성을 주시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상은 얼마나 충분한 의미가 될는지... 상상하면 신명이 납니다.

그런데, 삶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설거지할 것을 생각하며 서두르고, 기도와 동시에 분심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숨어 있는 보물을 발견하여 삶의 충분한 의미를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봉금 아나스타시아는 1827년 무렵, 이성삼 바오로와 김조이 아나스타시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녀의 부모들은 정해박해로 인해 피신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일찍부터 어머니에게서 훌륭한 신앙의 가르침을 받게 된 아나스타시아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킬 줄 알고, 천주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도 알았다. 그녀는 열 살 무렵에 교리문답과 아침저녁 기도를 배운 후 선교사를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선교사는 그녀의 나이가 비록 어렸지만, 그 마음에 감동하여 성체를 모시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후 아나스타시아의 덕행과 신심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1839년 기해 박해가 일어났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홍재영 프로타시아의 집으로 피신해 갔다가 그곳에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전주로 압송되었다. 아나스타시아는 이내 관장 앞으로 끌려 나가 신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관장이 서양 선교사가 간 곳을 묻자, 그녀는 나이가 어려 선교사의 일은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관장이 ‘천주를 배반하고 욕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일곱 살이 되기 전에는 철이 나지 않아서 읽을 줄도 모르고 다른 것도 몰라서 천주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곱 살 때부터는 천주를 섬겨 왔으니, 오늘 천주님을 배반하고 욕을 하라고 하시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천 번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나이가 어려 형벌을 받지 않은 채 옥으로 끌려가게 되자 그녀의 어머니는 아나스타시아의 신심을 의심하는 체하면서 틀림없이 배교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어떠한 시련에도 신앙의 가르침에 충실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포졸과 옥리들은 이봉금 아나스타시아의 나이가 어린데다가 압전하였으므로 동정심을 발휘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녀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또 이후로도 여러 차례 관장 앞으로 끌려 나가 위협을 당하였지만, 결코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장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그녀에게 고문을 가하도록 하였다.

아나스타시아는 어머니가 옥중에서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하였다. 그녀는 이제 의지할 데조차 없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천주 안에서 힘을 얻고 끝까지 자신의 영웅적인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러자 관장은 형리들을 시켜 한밤중에 옥에서 교수하라고 명하였으니, 이때가 1839년 12월 5일(음력 10월 30일)에서 6일 밤(음력 11월 1일) 사이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12세를 넘지 못하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이봉금 아나스타시아
(1827 ~ 1839년)

2022년 대구주보 개편 안내!

1면	교구 내 본당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2면	주일의 말씀 _ 신부님들의 강론
3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_ 강수원 신부 더불어 사는 세상 _ 교구 사회복지회 성경 속의 여인들 _ 박병규 신부 보시니 좋았다(생태환경)	4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_ 수도자 편 바티칸 소식 말씀 따라 잡기(성경 퀴즈) 문화와 영성
5면	믿음의 길 _ 124위 순교 복자 약전	7-8면	알림, 광고, 평화방송 강론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결과



대상 _ <주님 안에 사는 기쁨>

Sr.서주연 마리아(대구대교구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전통성가 부문 | 최우수상 <등불을 위하여> Fr.윤용선 바오로(부산교구 범일본당)
우 수 상 <복음의 기쁨> Fr.임석수 바오로(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장 려 상 <들어주소서> 김주현 사도 요한(대구대교구 범어본당)
<하느님 말씀을 따라> 이새론 안토니오(의정부교구 묵동본당)

생활성가 부문 | 최우수상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최은영 스텔라(서울대교구 잠실7동본당)
우 수 상 <복음의 기쁨> Sr.김정순 연희마리아(대구대교구 예수성심시녀회)
장 려 상 <아름다운 말씀> 김수현 율리야나(서울대교구 거여동본당)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전수진 아녜스(서울대교구 수궁동본당)
<당신 희망되어> 서혜린 요세피나(대구대교구 성바울로본당)

※ 시상식은 1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며, 일정과 장소는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걸어서 평일미사 참례해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51호 정답

1. 만군의 주님, 잔치, 잔치 2. 불행하여라 3. 아시리아 / 인간일 뿐 하느님이 아니다 / 고깃덩어리
일 뿐 영이 아니다. 4. 히즈키야의 찬미가

코로나19 종식의 해가 되기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월 3일(월) 19:30 꾸르실료 교육관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1월 3일(월) 11:00 성모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월 8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월 3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9(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근처)

대상: 24~40세 신자 (해외선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 미사, 올레길오름 트레킹

눈꽃산행피정: 1.8~10 / 1.21~23 /

1.28~30 / 2.6~9 / 2.12~14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기간: 3.6~8 / 3.17~19 / 3.26~28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구반장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교육 | 모집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2년도 정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상담심리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기간: 12.30(목)~1.3(월)

내용: 간호학과/사회복지/상담심리

문의: (043)270-0100~0102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년 정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접수: 12.30(목)~1.12(수)

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40. 혼인의 사랑 ㉑

평생 함께하는 삶 부부 사랑은 좋은 우정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결합입니다. 이 특징에는 상대방의 행복 추구, 상호성, 친밀함, 온유함, 견고함 그리고 함께 사는 친구 사이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혼인은 이 모든 것에 불가해소적인 배타성을 더하는 것으로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만들어 가겠다는 굳건한 서약으로 표현됩니다. 혼인 서약으로 늘 견고한 모습을 지내게 된 결합은 전통이나 사회적 절차 이상의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는 하느님 앞에서 드리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합이 포괄적인 것이기에, 배타적이고 충실하며 새 생명에도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부부는 언제나 상호 존중으로 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의 기쁨』, 123~125항)

국내성지순례 모집
1.17(월)~20(목) 전주·광주교구
2.21(월)~24(목) 수원·청주교구

제주성지순례 3일/4일
1.10(월)~1.13(목) 1.21(금)~1.23(일)
1.24(월)~1.26(수) 2.04(금)~2.06(일)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이영국 비뇨기과
전립선 | 방광 질환
요로결석 (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투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알라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상훈 (요셉)
☎ (053) 431-3377
대구 2, 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탄병원 3층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경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안마바우처
대구 전지역 대환영

근골격계·신경계·자세교정
053)425-7695~6
38년 전통 약손이 루카

www.theopen-daegu.co.kr **환절!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보록(바오로) 신부
1922년 1월 2일
- 장순도(바르나바) 신부
1971년 1월 5일
- 하야사카(이레네오) 주교
1946년 1월 6일
- 전석재(이나시오) 몬시뇰
1988년 1월 7일

교육 | 모집

바오로딸 1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1.15(토) 15:00~16:30

강사: 조현권 신부

주제: 신앙생활!-하느님 우야꼬예?

장소: 바오로딸 동성로 서원

신청: 바오로딸, (010)6681-518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이론화, 사범꽃꽃이, 칼림바, 발성법,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사진수업, 난타
제대꽃꽃이, 고전무용,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사회사업팀, 650-3529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5차: 1.21(금)~23(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주일 성령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시: 1.9(일), 1.16(일), 1.23(일)

9:30~18: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고령)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가톨릭스카우트 신입대원 모집

대상: 현 초등 3~6학년

신청: 1.31(월)까지

문의: 사무국장, (010)2810-8661

다음카페: 가톨릭스카우트 대구지구

2022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접수: 12.30(목)~1.3(월)

내용: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문의: (051)510-0702~8, 0804~8

2022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소속: 서울교구 산하기관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700, 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채용 | 안내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320-206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권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백합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사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엘스텍피아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형,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들 짝
26년 전통 | 초혼, 재혼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10-8880-0464
부산 051)817-3888 서울 02)3141-3888
wedmate.co.kr 이호택(야교보)

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M'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항상 서만수(주)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 진료문의: 216-734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요양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